

# TV 안쪽에 장식장이... 가구 품은 가전 '오브제' 첫 선



프리미엄 브랜드 'LG오브제' 론칭 TV·오디오·냉장고 등 4종 출시 스테파노 지오반노니 디자이너 참여 원목·금속 도입... 고급감 극대화

LG전자가 가전과 가구를 결합한 브랜드인 'LG 오브제'를 선보였다. 가구 시장 진출이나 '스마트홈' 전략과는 선을 그었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높은 활용도로 프리미엄 가전 열풍을 대중화한다는 포부다.

LG전자는 1일 서울 논현동 모스스튜디오에서 LG 오브제 제품 4종을 출시했다. TV와 오디오, 냉장고와 가습 공기청정기다.

오브제는 기존 가전제품을 '가구화'한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TV는 가장 오브제 브랜드 특징을 잘 살린 제품이다. 안쪽에 3단 수납공간을 만들어, TV 장식장이 하는 역할을 흡수했



LG전자는 1일 가전에 가구를 결합한 프리미엄 브랜드 '오브제'를 론칭했다. /LG전자

다. 냉장고는 하단에 작은 수납공간을 만들고 무게를 줄여, 필요에 따라 화장품냉장고 및 화장대나 미니바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LG전자는 오브제 디자인에 많은 공을 들였다. 세계적인 산업디자이너 '스테파노 지오반노니'가 참여했으며, 원목과 금속을 적극 도입해 고급감을 극대화했다.

가전 기능도 충실하다. TV는 65인치 UHD TV에 3.0채널 100와트 사운드바를 결합했다. 오디오는 영국 메르디앙 오디오와 협업해 만들었다. 냉장고는 컴프레서 대신 반도체를 이용해 소음을 대폭 줄였다. 가습 공기청정기는 서울수면환경연구소로부터 '수면 기능성 제품' 인증까지 받았다.

LG전자가 가구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



LG 오브제 TV는 안쪽에 3단 수납장을 마련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김재용 기자

한다는 의심을 가질만 하다. 당장 LG전자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가구박람회 '2018 추계 하이포인트 마켓 2018'에 '스마트 리빙 콘셉트'를 출품한 바 있다. 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인 나무찌와 함께 참가했다.

가격도 합리적인 편이다. 오브제 TV는 출고가 기준 999만원이다. 출고가 1000만

원을 넘는 시그니처 TV보다 저렴하다. 사운드바와 TV 장식장까지 감안하면 체감 가격은 더 내려간다.

그러나 LG전자는 완전히 선을 그었다. LG전자 관계자는 "오브제는 가전에 가구 디자인을 입힌 것일 뿐, 가구 시장에 진출하려는 계획은 아직 없다"며 "초프리미엄 브랜드인 시그니처와 프리미엄 브랜드인 오브제가 위 아래에서 서로 밀고 당긴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오브제가 가구를 통합한 스마트 홈 가전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거리를 뒀다. 일단 오브제 4종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능 대신 와이파이를 이용한 원격 조종만 가능하다. 개발 기간이 2년여가 걸렸던 탓이다. 추후 AI를 적용하는 등 가능성을 내비치긴 했지만, 오브제는 프리미엄 가전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LG전자관계자는 "오브제는 첨단 기술보다는 프리미엄에 초점을 맞춰 만들었다"며 "추후 AI를 탑재한 모델을 출시할 수는 있지만, 스마트 홈을 염두에 둔 브랜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쉐보레, 말리부 최대 510만원 할인

내수 소비 촉진 '쉐비 페스타' 진행 스파크 130만원, 임팔라 620만원 ↓

한국 철수 논란에 이어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지엠의 쉐보레가 내수 소비 촉진을 위해 가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쉐보레는 11월 '쉐비 페스타'를 시행, 연말 혜택을 미리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연중 최대 할인 혜택으로서 이달부터 연말까지 동일하게 제공된다.

스파크는 할인 혜택을 전 트림으로 확대하는 한편 할인 폭을 13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월 10만원으로 스파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차 최초 10년 초장기 할부를 시행한다.

지난 달 선보였던 LG 트롬 건조기 출고 기념품은 연말까지 제공되며, 할인 대



한국지엠 쉐보레 스파크.

신 선택이 가능하다.

말리부는 할인 혜택을 전 트림으로 확대, 최대 510만원까지 할인을 제공하며, 트랙스는 가솔린 모델 기준 최대 280만원을 할인한다. 차종별 최대 할인폭은 임팔라 620만원, 이쿼녹스 2018년형 기준 250만원, 카마로 45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 LGU+ 3분기 호실적... 5G 상용화 속도내나

영업익 2281억... 전년비 6.5% ↑ IPTV 등 홈미디어 사업이 견인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인수와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통해 올해 양호한 실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 여파에도 홈미디어 사업에 힘입어 3·4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향후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케이블TV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시너지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5G 이동통신을 위해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며 시너지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3분기 매출 2조9919억원, 영업이익 2281억원, 당기순이익 1538억원을 기록했다고 1일 공시했다. 매출은 2.2%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6.5% 늘었다. 특히 이동

통신3사 가운데 유일하게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증가 등의 여파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5% 줄었다.

매출 가운데 영업매출은 2조3256억원, 단말매출은 6662억원을 달성했다. 영업매출 중 무선사업 매출은 1조3508억원, 유선 매출은 9644억원으로 집계됐다.

무선매출은 정부의 가계 통신부담 인하 정책의 영향을 받아 5.3% 감소했지만, 가입자가 늘었다.

LG유플러스의 호실적은 홈미디어 사업의 견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IPTV 수익은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인 2539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31.5% 상승했다. IPTV 가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390만8000명을 기록했다. 홈미디어 매출은 이에 힘입어 지난해 3분기보다 15% 증가한 5170억원을 기록했다. 홈

미디어 사업의 성장으로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요인을 상쇄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향후 LG유플러스는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혁주 LG유플러스 CFO는 이날 컨퍼런스 콜을 통해 "5G 시대에는 데이터 사용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5G 네트워크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5G 주파수는 내달 1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맞춰 현재 서울, 대전 등에 시범망을 구축하는 등 5G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희 5G전략담당은 "단말의 경우 주파수 이용 시점부터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며 "5G 스마트폰 단말 출시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

## 상품성 개선 '2019년형 이쿼녹스' 출시

쉐보레, 세부 트림 7가지로 확대 편의사양 강화... 가격은 그대로

쉐보레가 1935년부터 시작된 SUV 개발 노하우로 탄생시킨 아메리칸 대표 중형 SUV '이쿼녹스'의 2019년형 모델을 출시했다.

1일 쉐보레에 따르면 2019이쿼녹스는 세부 모델별로 기본 적용되는 안전사양과 편의사양을 보강해 상품성을 높이면서도 가격을 기존과 동일하게 책정해 경쟁력을 높였다.

햄틱사이트(무소음 진동 경고 시스템), 시티브레이크 시스템(속속 자동 긴급 제동시스템),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전방 거리 감지 시스템, 스마트 하이빔,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후측방 경고 시스템과 함께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시스템을 전 모델에 추가로 기본 적용했다.

또 신형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쉐보레 이쿼녹스.

이 LS트림부터 기본 적용되며, 후방카메라와 듀얼 커넥션 블루투스 핸드프리, C타입이 포함된 일루미네이팅 듀얼 USB 포트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이 가격 인상 없이 기본 사양으로 전 트림에 적용된다.

LT 트림부터 적용되는 고급형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는 내비게이션과 고해상도 디지털 후방 카메라가 탑재되며, 클러스터 이오나이즈 기능 또한 가격 인상 없이 새롭게 추가됐다.

/양성운 기자

## SKT '와이파이 기술' 글로벌 어워드 6년연속 수상

WBA 인더스트리 어워드 '최우수 고객가치 혁신' 상

SK텔레콤이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로 글로벌 어워드에서 6년 연속 수상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WBA 인더스트리 어워드'에서 '최우수 고객가치 혁신' 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WBA 인더스트리 어워드'는 AT&T, NTT도코모, 웰컴 등 전세계 통신사업자와 와이파이 장비 제조사로 구성된 '무선브로드밴드 연합'에서 주관한다. 와이파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 시상식으로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SK텔레콤은 차세대 와이파이 서비스 'T 와이파이 AX'를 통해 삼성등 코



SK텔레콤 조성민 브로드밴드테크랩 리더(오른쪽)가 수상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텔레콤

엑스, 광주 유스퀘어 등 트래픽이 밀집되는 장소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T 와이파이 AX'는 802.11ax 표준 기반 서비스로 AP당 최대 4.8Gbps 속도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다수 사용자 대상 동시 데이터 전송(OFDMA, MU-MIM

O)과 AP혼잡 지역에서의 와이파이 성능 개선(DSC) 등의 기술을 활용했다.

SK텔레콤은 올해 802.11ah 표준 기반 'IoT 전용 와이파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간단한 센서부터 고용량 IoT기기까지 최대 1000개의 디바이스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